



박소현의 섹.시.토크

성적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열대야 때문에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밤. B부부는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듣고 웃지 마, 비난하지도 말고,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말해 봐.”

에 충실 하는 게 낫지.” 앞만 해도 남편은 입을 열 것 같지 않다. 환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야기해 봤자 득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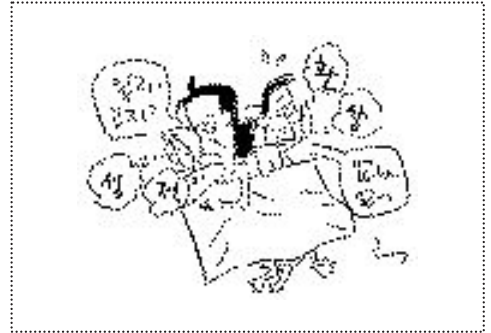
이상 환상이 아니라구.” “혹시 알아? 내가 환상을 실현시켜 줄지.”

다음달 어머니 생신에는 얼마를 드릴 것인가, 웅돈 좀 올려달라 같은 뻔한 이야기들이 한 순배 돌고 난 다음 아이들 이야기가 뒤를 이었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다.

B는 속으로 ‘남자 두 명이라 하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 남자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인 내가 쓰러짐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는 것이 웬

“다른 부부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는대, 우리는 잘 안되네.”, “누가 그래? 누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네?”

“이것 봐, 이렇게 나를 잘 알았어.” 남편의 지적에 움찔했다. 남편 입에서 낯선 여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 버린 것이다.



성적환상 아무나 나누나 실현할 수도 없고 실현시켜 줄 수도 없는데 괜히 빈정만 상하지

지 용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딪쳤다. “왜 말 안 해?”,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그런 이야기 마누라한테 시시콜콜 털어놓는 남자가 바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바가지 굵을 재료만 더해 주는 거라고.”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만 잘 테니까 말 시키지 마.”

“돌아누운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B는 생각했다. ‘왜 멋있게 서로의 성적 환상을 나누지 못하는 것일까? 환상은 환상일 뿐인데 왜 환상 안에서 화를 내고 구속할까?’

그러다 단순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 대화를 해 본 사람이 하는 거지.’

맞는 말이다. 아무나 성적 환상을 나누겠는가. 또 나눠볼 뉘하겠는가. 실현할 수도 없고, 실현시켜 줄 수도 없는데 빈정만 상하지. 부부라는 틀에 갇혀 버리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성적환상을 나누는 것도 그 중 하나인 것이다. (연애칼럼니스트)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인터넷을 들끓게 한 결혼 발표가 있었다. 인기 배우 권상우(사진)가 동료 연예인 손태영과의 결혼을 깜짝 발표하면서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제3회 태풍 갈매기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몰고와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군포 수리고에 재학중인 ‘피겨 요정’ 김연아는 고려대 입학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다. 10여 곳의 국내 대학으로 부터 입학 제의를 받았던 김연아는 최근 고려대 행을 결정하면서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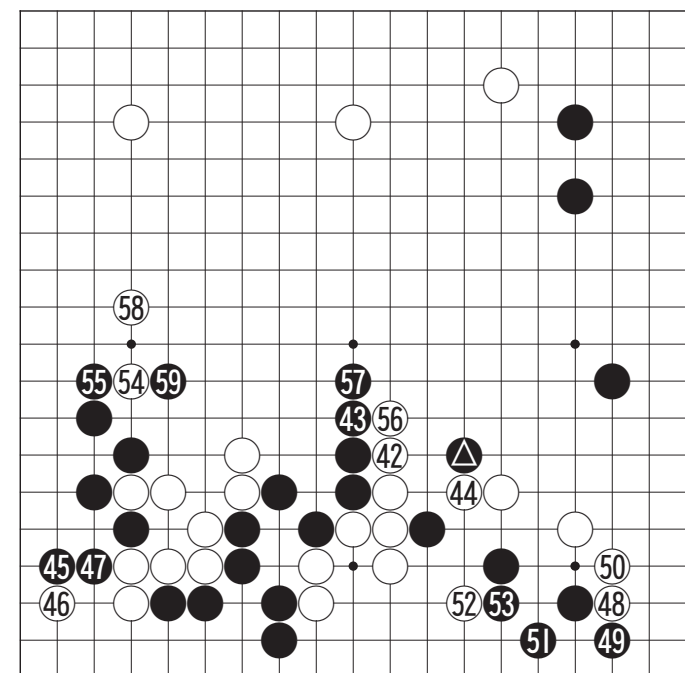


권상우-손태영 결혼 발표 '후끈'

지난주 개봉한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인기도 이어지고 있다. 송광호, 정우성, 이병헌 등 호화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놈놈놈’은 개봉 첫 날 40만명의 관객 동원에 성공한데 이어 첫 주에만 218만명의 관객 물의를 하면서 한국영화 역대 최다 관객수에 도전하면서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프로야구 순위경쟁에도 네티즌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4위 자리를 놓고 KIA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가 매일 순위 바꾸기를 행진을 하면서 ‘프로야구 순위’가 덩달아 인기 검색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연아기자 wool@kwangju.co.kr



제17회 광일배 전국전남지역대회

위험천만한 순간

4회전 2국 3보 (42~59)

白 김광식 5단 (주)송림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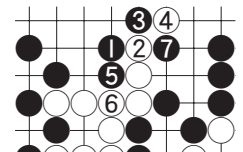


<참고도>

흑 ▲가 좋은 감각이다. 이 수는 당장 백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는 맛을 노리고만 있어서 백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박광주 5단은 지나가는 길에 백의 근거도 없앨 겸 흑 45, 47로 두어 이득을 취했는데 기세가 강한 김광식 5단은 이를 외면하고 백 48부터 우하귀를 공략해본다.

그러나 이 수가 위험천만한 수였다. 흑이 53을 받지않고 즉각 ‘참고도’의 흑 1로 두어 왼쪽 백 대마를 급습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흑 7로 강



<참고도>

수라고 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대가 워낙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데다가 백 대마가 워낙 커서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까운 순간을 흘려보내자 김광식 5단의 기세가 더욱 살아났다. 54, 58로 효과적으로 약점을 커버하고 있다. 흑 59가 때늦은 역습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유병용 삼성화재배 아마 최강자

유병용 아마6단이 생애 첫 정상에 올랐다. 유병용은 지난 23일 열린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른 아마에선에서 황진형 아마6단을 맞아 223수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인터넷 대국으로 열린 이날 경기에서 유병용은 초반 좌변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었지만 중반 중앙에서 세력을 키워고, 중반 대마를 잡아내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99명의 아마 기사가 참여했으며, 유병용과 4강 진출자인 함영우·황진형·정찬호 아마6단이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른 통합에선 출전권을 따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스펀스

여행기방 꾸리기① 장기간의 배낭여행

-최대한 짐을 줄이고 여행할 나라와 목적에 따라서 옷을 결정한다.

-속옷이나 양말같은 작은 것들은 형질 주머니에 담아 흐트러지 않도록 한다.

-비행기표, 현금, 카드, 카메라 등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조그만 가방을 따로 준비한다.

-화장품은 일회용으로 챙겨가는 것이 좋다. 가져 갈 때도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다 쓰고 버릴 수 있어 돌아올 때도 짐을 줄일 수 있다.

-옷은 미리 세트로 정리해 넣어두면 간편하게 짐 정리를 끝낼 수 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25일(음 6월 23일 丙寅)

36년생 제사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니 분수를 지켜라. 60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라. 72년생 만족한 결과가 있으니 설계를 다시 하라. 84년생 직기의 마무리는 큰 재물을 얻느니 끝을 조심. 행운의 숫자: 07, 40

37년생 불로소득을 바라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 49년생 기운이 넘치고 의욕을 앞세우나 완급을 조절하라. 61년생 새로운 인연은 좋은 결과가 된다. 73년생 호사다마 좋은 날이지만 주변을 잘 살펴 봐야 한다. 85년생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행운의 숫자: 21, 25

38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 50년생 숨은 풀리고 주의를 돌려보라. 62년생 시기상조니 준비를 잘하라. 74년생 새로운 곳에 온 행상이니 불편은 하나 오히려 재미가 있다. 행운의 숫자: 11, 34

39년생 앞으로 불행사가 예상되니 흥사는 없다. 51년생 물건을 조심하라. 63년생 시기는 빠르나 송풍은 늦다. 75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협조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12, 30

40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니 좋을 수는 없다. 52년생 부친의 건강도 살펴보고 인사를 올려라. 64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펴면서 가야 한다. 76년생 시도 있고 실패도 있음 서둘러 가려는 충사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08, 37

41년생 정리를 잘하면 득은 저절로 생긴다. 53년생 모든 일이 난조로 신중하게 내실을 기하라. 65년생 시기가 빠르니 자기 사담으로 주변을 구족하라. 77년생 우연한 기회가 좋은 일로 연결되니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09, 36

42년생 대고는 없다. 54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66년생 속으로는 통탄 하지만 오히려 불씨가 움틀 수 있다. 78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마라. 행운의 숫자: 01, 35

43년생 큰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망할 수도 있다. 55년생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실속 있는 사업도 되는 일이 없으리라. 67년생 옛 인연을 지속하라. 79년생 신듯한 새 맘으로 삼간의 즐거움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18, 32

44년생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56년생 속전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긴다. 68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함이 지속된다. 80년생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14, 38

45년생 될 만한 일은 있으나 성사는 어려워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7년생 계획했던 좋은 일이 이루어지리라. 69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나 침착하면 정리된다. 81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길 수니 말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7, 29

46년생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니 배려를 돌아온다. 58년생 모든 의욕을 줄이고 실리를 배려라. 70년생 과욕을 버리고 친구들의 도움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82년생 독신은 밖으로 나가라 즐겨줄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03, 45

47년생 길사가 적으니 조심하여 추진하라. 59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나 결과는 좋을 수다. 71년생 승부수를 띄워보라 결과는 이기는 쪽이다. 83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면 해심함이 보이니 보완하고 넘겨라. 행운의 숫자: 05, 26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은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 large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ach column contains a lesson title, a short dialogue, and a list of vocabulary words.